자연과학 책을 읽는 즐거움

DOI: 10.3938/PhiT.25.031

박 용 태

본격적으로 자연과학 책을 사 모으고 읽어온 지 10년이 되었다. 주로 우주, 생명, 마인드를 주제로 한 책들이다. 과학책을 읽는 즐거움은 예술이나 인문학 책을 통해 얻는 정보나 앎의 축적을 통해 인간을 아는 것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깊이와 즐거움을 준다. 그것은 새로운 깨달음에서 오는 인식의 풍요로움과, 인간 지성의 경계가 넓어지는 재미, 그리고 자연과 우주를 보는 세계관이 확장되는 재미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타치바나 타카시는 21세기 교양은 자연과학이라고 했다. 깊이 공감한다.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자연과학 책을 읽고, 혼자서 이해하기 어려운 책들은 해당 전문분야 교수님들의 강연을 듣는 자연과학 책을 읽는 모임을 조직했다. 그러면 자연과학 책을 읽으면서 나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10년 전의 근대적 인간중심적 세계관에서 우주론적 세계관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우주와 자연, 생명을 공진화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계관의 변화 이것은 정말 큰 수확이다.

20세기에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시공의 영역이 우주로까지 넓혀졌는데 정치, 경제 사회, 직장과 학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의 틀은 생물학적으로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인식론적으로 18세기나 19세기의 근대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뉴턴의 근대과학의 선형적인 세계관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도 그랬었다. 18세기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랐고 행복을 추구했다. 21세기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제한된 인식의 범위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300년 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분자 생물학을 모르고도 충분히 스스로 행복했을 것이다. 그러면 21세기를 사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21세기를 산다는 의미가 없지 않은가? 18세기 사람과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시공간의 인식의 틀은 무엇이 다른가? 이것이 나로 하여금 자연과학 책을 읽게 만들었다.

자연과학은 제한된 인식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역사였다. 현대 물리학 책들과 최신의 우주론 연구 논문들은 우리의 인식의 틀을 10의 -35승 미터의 플랑크 길이부터 무한대로 확장시켜 준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다. 여기서 통찰이 나오고, 인식이 확장되고, 사실의 기반 위에서 상상하고 추측하는 즐거움과 경이로움을 주지 않는가? 자연과학 책을 읽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인식의 즐거움이다. 이것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상상력의 차이이다. 그래서 칼 세이건, 스티븐 와인버그, 셉 카를, 에드워드 윌슨, 스티븐 제이 굴드나 리처드 도킨스 등의 자연과학 책들이 내용의 재미와 문장의 아름다움에 있어 문학 작품에 뒤지지 않는 재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국내의 이강영 교수나 이종필 교수, 김상욱 교수, 이정모 관장, 이명현 박사 등 국내학자들이 소화해 낸 자연과학 책들의 내용과 문장의 아름다움은 또 어떠한가?

물론 쓸모와 효율성에 치중해야 되는 현실에서 21세기 교양인이 되기는 쉽지 않다. 오페라를 비롯한 현대 예술은 대중과 타협하지 않는다. 자연과학도 마찬가지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직관과 다르기 때문이고, 인간의 인식과 무관하게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의 질서와 법칙이 존재하고, 인간은 힘들지만 학습하면 그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별의 먼지에서 왔음을 알고 우주와 지구와 생명이 138억 년 동안 어떻게 공진화해 왔고, 왜 늙어야 하고 죽음은 또 어떤 생물학적 의미가 있는지 알아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 준다.

존재의 풍요로움과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21세기 교양인의 자질이라면 새로운 입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인문, 예술에 더하여 자연과학 책을 읽는 것은, 0.001퍼센트의 고급 교양클럽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자연의 상상력이 인간의 상상력보다 위대함을 알고 빅뱅에서부터 138억 년 우주와 자연, 생명의 공진화 속에,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실체가 무엇인지 탐구하기 위한 강한 내적 동기에서 자기 돈으로 책을 사 모으고, 힘들게 책을 읽고 자기 시간을 투자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실재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어떠한가? 한 번뿐인 인생, 근원적인 질문에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21세기 현대인이 되기는 어렵다. 21세기 현대인이 되고자 한다면 니체의 표현처럼 익숙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호의가 필요하다. 자연과학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론적 혁명이다. 인식론적 혁명을 위해선 꾸준한 자연과학 독서가 필요하고 단련이 필요하다. 안나푸르나를 오르는 것처럼, 꾸준하게....

저자약력

박용태 PD는 현재 KBS PD로 근무하고 있다.